

2015년 12월중 부산지역 경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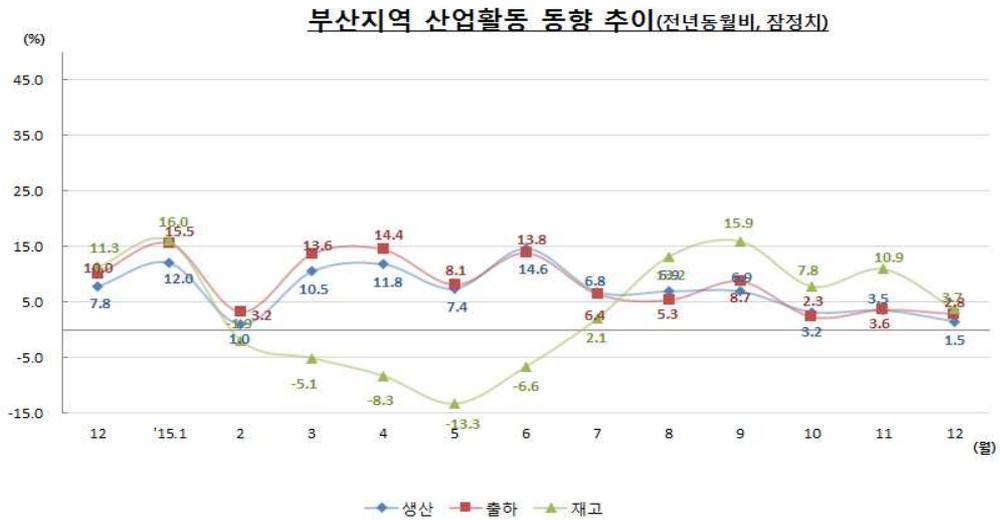
개 황

- 12월중 부산지역 경제는 생산활동 호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교역 감소로 수출은 부진하였고, 정부의 내수경기부양책에도 민간소비는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함
 - 업종별로는 지역완성차업체의 對 미국 수출 호조세 지속 및 해외 생산기지로의 자동차부품 납품 증가 등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업황개선세는 지속되고 있지만, 철강제품, 전기장비, 기계장비 등은 전방산업 경기악화에 따른 수요부진 및 과당경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
 - 부문별로는 일부품목의 수요증가에 따른 對 미국 수출 증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수출은 부진하였고, 민간소비 및 취업자수도 내수경기 침체로 감소하였지만 환적화물량 증가에 따른 항만물동량은 증가,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도 증가세를 이어감
 - 중국 경제 둔화, 저유가 지속, 수출경쟁국의 통화약세 등의 대외 위험요인이 여전할 뿐만 아니라 경제지표도 혼조세를 나타내는 등 지역경제의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

- 12월중 부산경제의 부문별 동향
 - 산업활동은 생산, 출하, 재고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1.5%, 2.8%, 3.7% 증가
 - 수출은 113억7천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.2% 감소, 수입은 12억4천8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.3% 감소
 - 부산항 물동량 처리 실적
 - 컨테이너 수송 실적은 1,646,266TEU로 전년동월대비 3.8% 증가
 - 화물 처리 실적은 29,857,265톤으로 전년동월대비 2.4% 증가
 - 중소기업 정상조업체 비율은 84.9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하락
 - 신설법인은 480개체로 전년동월대비 7.4% 증가
 - 고용률은 55.9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하락, 실업률은 3.6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하락
 - 건축허가면적은 56만7천㎡로 전년동월대비 85.9% 증가, 건축착공면적은 52만6천㎡로 전년동월대비 95.3% 증가
 - 소비자물가지수는 111.05(2010=100)로 전년동월대비 1.3% 상승
 -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5.5(2010=10)로 전년동월대비 6.0% 감소

1. 산업활동

- 12월중 부산지역 산업활동은 생산, 출하, 재고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1.5%, 2.8%, 3.7% 증가
 - (생산) ‘전기장비’, ‘가죽, 가방 및 신발’, ‘기타 기계 및 장비’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, ‘기타 운송장비’, ‘고무제품 및 플라스틱’, ‘자동차 및 트레일러’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.5% 증가
 - 기타 운송장비업종은 지역 조선업체의 기 수주된 벌크선, 컨테이너선의 건조활동 지속으로 업황 호전
 -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종은 지역 완성차업체의 對 미국 수출 증가세 지속 및 동력 전달장치, 차체부품 등 자동차부품의 납품 호조로 생산활동 증가
 - (출하) ‘전기장비’, ‘기타 기계 및 장비’, ‘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’ 등은 감소하였지만, ‘기타 운송장비’, ‘자동차 및 트레일러’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.8% 증가
 - (재고) ‘전기장비’, ‘자동차 및 트레일러’등은 감소하였지만, ‘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’, ‘고무제품 및 플라스틱’, ‘금속가공’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3.7% 증가



【 산업활동 증감내역(전년동월대비) 】

구 분	생 산(1.5%)	출 하(2.8%)	재 고(3.7%)
증 가	기타 운송장비(42.1%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(14.1%), 자동차 및 트레일러(5.0%)	기타 운송장비(43.4%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11.7%), 자동차 및 트레일러(11.0%),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(72.4%)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(33.1%), 금속가공(30.2%)
감 소	전기장비(-25.2%), 가죽, 가방 및 신발(-13.8%), 기타 기계 및 장비(-12.3%)	전기장비(-22.4%), 기타 기계 및 장비(-12.6%)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(-12.3%)	전기장비(-19.3%), 자동차 및 트레일러(-9.3%)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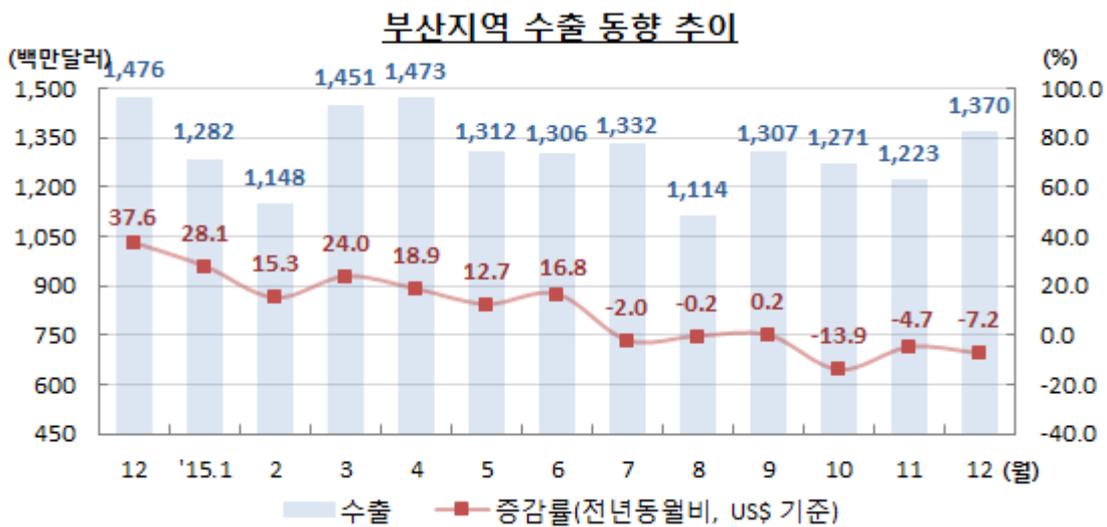
2. 무역

가. 부산지역 수출입

- 12월중 수출실적 : 13억7천만 달러 (전년동월대비 7.2% 감소)
- 12월중 수입실적 : 12억4천8백만 달러 (전년동월대비 1.3% 감소)
- 12월중 무역수지 : 1억2천2백만 달러 흑자

○ 품목별로는 자동차(14.6%), 자동차부품(6.3%), 편직물(36.8%) 등은 수출 호조를 나타냈지만,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에 따른 철강제품(-12.9%),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(-59.2%) 등의 수출은 부진하였음.

○ 국가별로는 주요 수출국 중 미국(16.6%)을 제외하고 중국(-7.2%), 일본(-0.3%)의 수출은 감소하였고, 베트남(19.4%)은 편직물, 섬유식품 등의 식물(41.2%)의 증가로 수출호전을 보였으며, 아랍에미리트 연합(-17.5%)은 자동차부품 등 수송기계(7.3%)는 증가하였지만, 철강제품(-58.6%)의 감소로 수출이 부진하였음.



【 부산의 주요 수출국별 수출 동향(전년동월대비) 】

순위	국가	비 중	증감률	내 용 (수출금액 기준)
1	미국	27.5%	16.6%	수송기계(31.9%), 철강제품(-39.3%), 기계요소공구및금형(-18.7%)
2	중국	13.6%	-7.2%	수송기계(-7.5%), 철강제품(-25.7%), 수산물(8.9%)
3	일본	8.0%	-0.3%	철강제품(-28.9%), 수송기계(52.0%), 수산물(-26.8%), 기초산업기계(54.4%)
4	베트남	5.7%	19.4%	식물(41.2%), 산업기계(26.7%), 플라스틱제품(98.0%)
5	UAE	3.4%	-17.5%	수송기계(7.3%), 철강제품(-58.6%)

[전국 수출입]

- 12월중 전국 수출실적 : 424억7천2백만 달러 (전년동월대비 14.1% 감소)
- 12월중 전국 수입실적 : 354억7천만1백만 달러 (전년동월대비 19.2% 감소)
- 12월중 전국 무역수지 : 70억1백만 달러 흑자

【 부산의 수출입실적 전국비중 추이 】

구 분	2013년	2014년	2015.12월(당월)	2015.12월(누계)
수 출	2.4%	2.6%	3.2%	3.0%
수 입	2.6%	2.8%	3.5%	3.3%

나. 항만물동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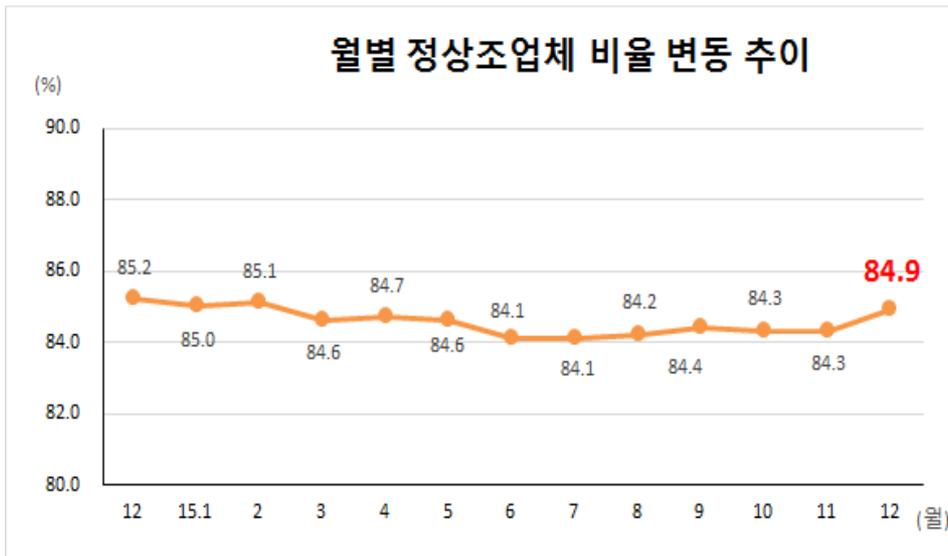
- 12월중 컨테이너 수송 실적 : 1,646,266TEU(전년동월대비 3.8% 증가)
 - 세부항목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, 수입(6.4%), 수출(1.2%), 수입환적(5.2%), 수출환적(2.1%)
 - 12월중 부산지역 컨테이너 수송 실적 전국비중 : 75.0%

- 12월중 화물 처리 실적 : 29,857,265톤(전년동월대비 2.4% 증가)
 - 세부항목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, 국적선(-3.9%), 외국선(2.9%), 연안선(9.4%)
 - 12월중 부산지역 화물 처리 실적 전국비중 : 23.7%

3. 중소기업 조업상황

□ 12월중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상조업체 비율 : 84.9% (전년동월대비 0.3%p 하락)

- 신흥국의 경제 부진 우려와 저유가 지속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는 내수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일부 중소기업들은 하청물량 감소 및 공공기관 납품물량 감소 등의 판매부진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정상조업체 비율은 전년 동월대비 소폭 하락



- 정상조업 업체비율이 80% 이상을 보인 업종은 연식품, 선박수리, 염색, 조선기자재, 자동차부품, 기계, 가구, 니트 8개 업종이며 인쇄, 공예, 비철금속, 직물, 프라스틱 5개 업종은 80% 미만으로 부진

【 업종별 정상조업률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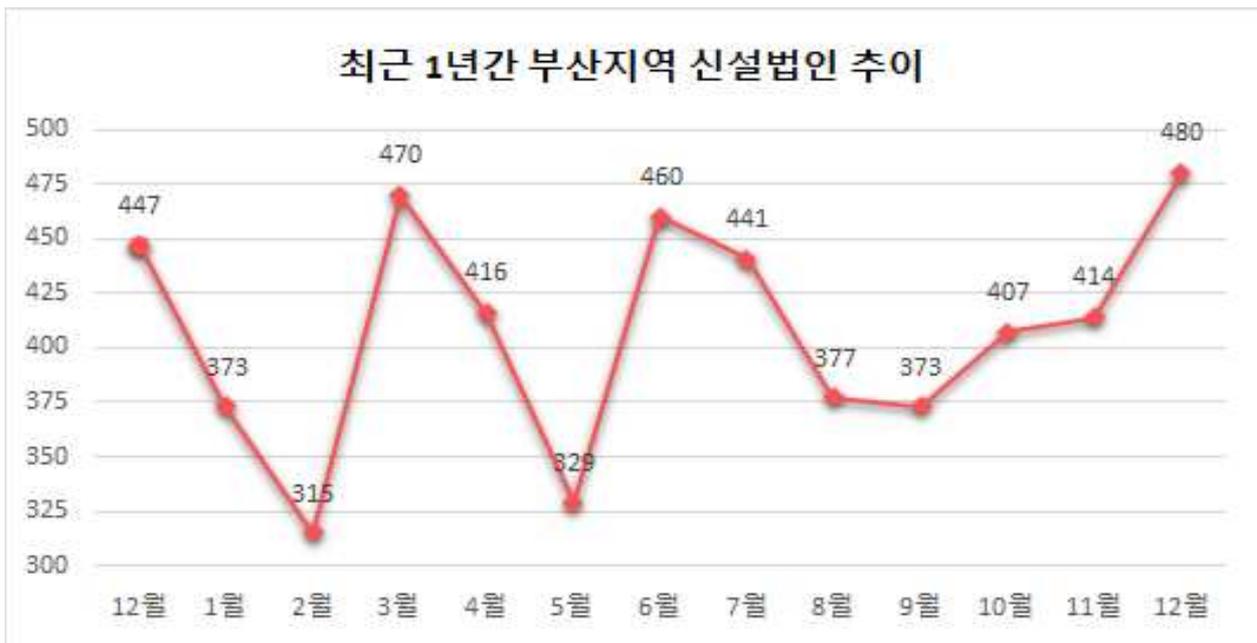
구 분	업 종
호 조	연식품(97.4%), 선박수리(94.4%), 염색(92.9%), 조선기자재(94.0%), 자동차부품(91.8%), 기계(90.8%), 가구(87.7%), 니트(84.6%)
부 진	인쇄(65.9%), 공예(64.2%), 비철금속(64.6%), 직물(61.9%), 프라스틱(53.3%)

- 조사대상 1,484개체 중 정상조업 업체는 1,260개체, 조업단축업체는 전체의 13.7%인 203개체, 휴·폐업 업체는 21개체(1.4%)임

4. 신설법인

□ 12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 : 480개체 (전년동월대비 7.4% 증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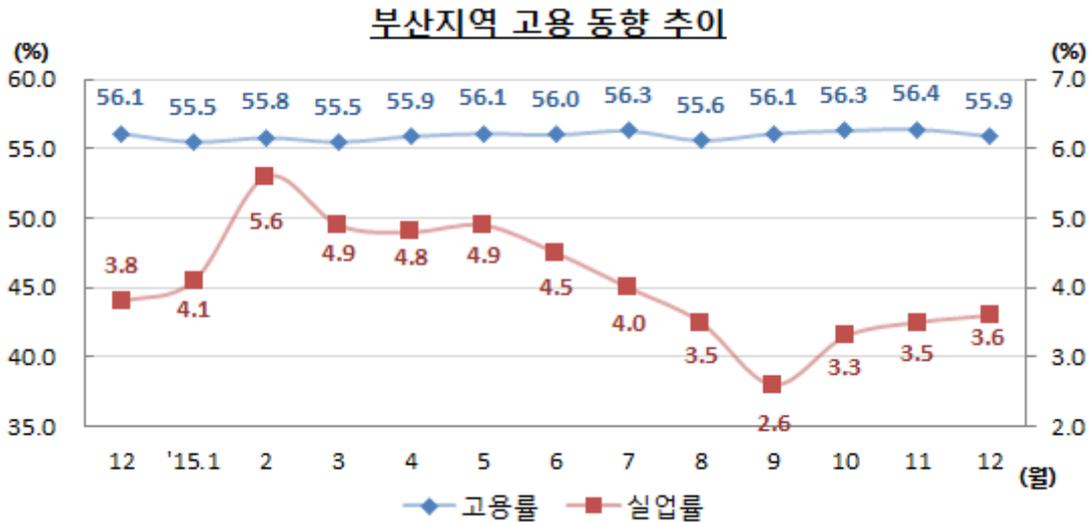
-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중국 경기 둔화, 미국 기준 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, 정부의 지속적인 소비 진작 정책, 저금리 기조 지속, 고용시장 불안정에 따른 창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7.4% 증가



-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144개체(30.0%)로 가장 많았고, 이어,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·서비스업 130개체(27.1%), 제조업 86개체(17.9%), 건설업 56개체(11.7%), 운수업 29개체(6.0%), 정보통신업 11개체(2.3%) 등의 순
- 자본금 규모별로는 5천만원 이하가 347개체(72.3%)로 가장 많았고, 이어, 1억원 이상~2억원 미만 64개체(13.3%), 3억원 이상 44개체(9.2%), 2억원 이상~3억원 미만 24개체(5.0%), 5천만원 초과~1억원 미만 1개체(0.2%) 순
-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73개체(15.2%)로 가장 많았고, 이어, 강서구 65개체(13.5%), 부산진구 47개체(9.8%), 연제구 42개체(8.8%), 사상구 36개체(7.5%), 동래구 34개체(7.1%), 금정구 28개체(5.8%) 등의 순이었으며, 영도구 신설 법인은 10개체(2.1%)에 그쳐 가장 적었음

5. 고용

- 12월 고용률 : 55.9% (전년동월대비 0.2%p 하락, 전월대비 0.5%p 하락)
- 12월 실업률 : 3.6% (전년동월대비 0.2%p 하락, 전월대비 0.1%p 상승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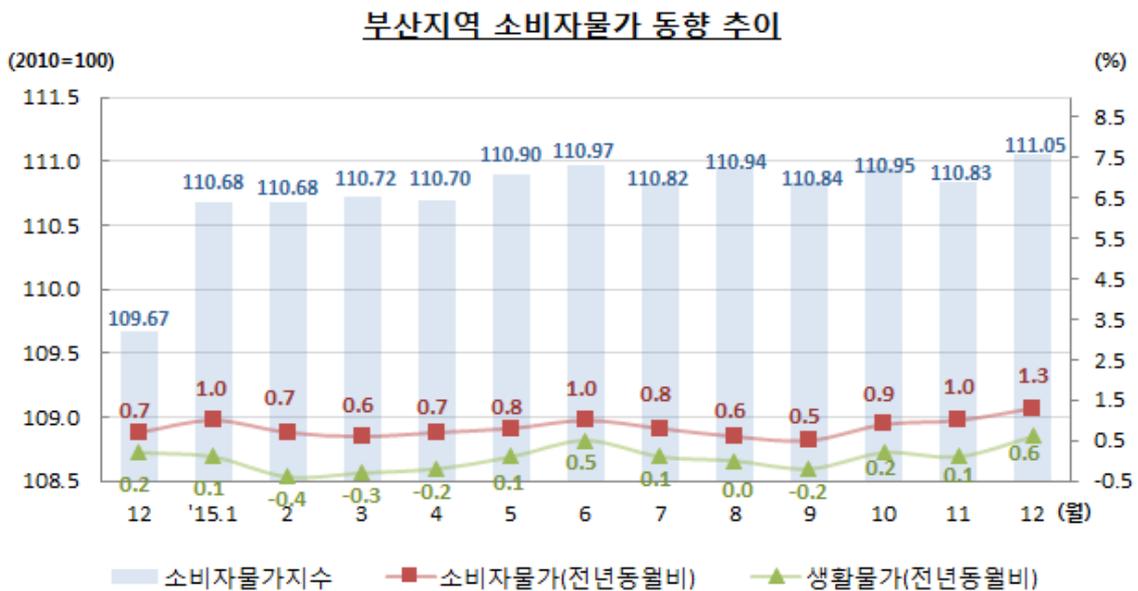
- 12월 경제활동참가율 : 57.9% (전년동월대비 동일, 전월대비 0.6%p 하락)
 - 15세이상인구(노동가능인구)는 2,9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(0.1%) 증가했으며, 경제활동인구는 1,7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(-0.6%) 감소. 비경제활동인구는 1,2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(1.2%) 증가
- 12월 취업 동향
 - 취업자는 1,6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(0.3%) 감소
 - 산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은 19천명(6.9%),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 1천명(0.1%) 증가한 반면,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6천명(-1.9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21천명(-8.3%), 건설업 4천명(-3.6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1천명(-0.2%) 감소
 - 고용률은 55.9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감소
- 12월 실업 동향
 - 실업자는 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(-8.1%) 감소
 - 실업률은 3.6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감소

6. 건축

- 12월중 건축허가면적 : 56만7천㎡ (전년동월대비 85.9% 증가)
 - 전년동월대비 문교사회용(-11.1%)은 감소한 반면, 공업용(287.0%), 주거용(186.7%), 상업용(56.7%) 부문은 증가
- 11월중 건축착공면적 : 52만6천㎡ (전년동월대비 95.3% 증가)
 - 전년동월대비 문교사회용(855.2%), 공업용(146.6%), 상업용(97.4%), 주거용(62.3%) 등 전 부문에서 증가

7. 물가

- 12월 소비자물가지수 : 111.05(2010=100)로 전년동월대비 1.3% 상승
 - 교통(-5.6%), 주택·수도·전기 및 연료(-1.8%)는 감소한 반면, 주류 및 담배(52.8%),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(3.8%), 음식 및 숙박(2.5%), 교육(1.9%), 보건(1.7%) 등은 상승



- 품목성질별로는, 전년동월대비 상품과 서비스는 각각 0.7%, 1.7% 상승
- 생활물가지수는 109.36(2010=100)로 전년동월대비 0.6% 상승
 - *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

8. 소비

□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: 105.5(2010=100)로 전년동월대비 6.0% 감소

-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(-7.2%)과 대형마트(-4.7%)에서 부진
- 품목별로는 화장품(7.6%)만 증가, 가전제품(-15.7%), 신발가방(-11.6%), 의복(-9.1%), 오락취마경기용품(-7.7%)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

